

## 물리적 · 영적 차원의 우주모형 제시 벤토프 「宇宙心과 정신물리학」

— 공연기획가 姜駿澤씨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은 그 수많은 역사와 비밀을 안은 채 말없이 인간에게

다가선다. 다만 인간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인 까닭에 신비한 우주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이며, 윤회라는 것은 실제하는가? 물질 너머엔 어떠한 세계가 있는가? 인간에게 온통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 투성이다.

강준택씨(39 · 공연기획 「예푸리」 대표) 역시 이러한 수수께끼를 안고 읽기 시작한 책이 이차크 벤토프의 「宇宙心과 정신물리학」(류시화 · 이상무 옮김, 정신세계사, 87)이다.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래 전부터 심령과학이라든가 주역 같은 것에 관한 책을 꽤 많이 읽었죠. 나는 종교가 없으니 무신앙의 입장에서 ‘영혼의 문제’를 캐고 들어간 겁니다. 예컨대 영적인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가에 대한 도전을 한 셈입니다.”

‘파동의 세계와 인식의 진화’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저자는 기초적인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물리적 · 영적 차원의 새로운 ‘우주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책은 책일 뿐이죠. 결국 남의 경험이기 때문. 내 생활에 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절로 기억되는 부분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헛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우주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해탈’도 일종의 헛된 욕망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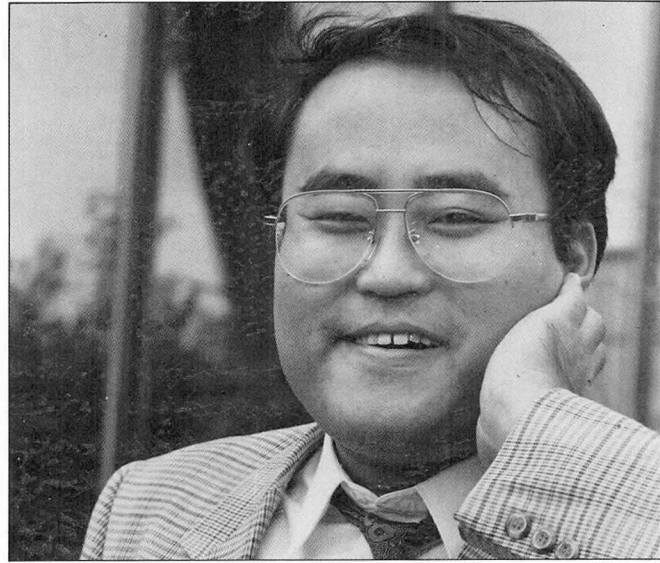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산다면, 그게 바로 우주질서를 따라 걷는 진정한 나의 길이 아닐까요?”

생의 윤회를 맹신하고, 영혼에 대해 쓸데없는 욕망을 키우는 것은 어리석다는 강준택씨의 말이다. 그러한 그의 단단한 현실인식은 곧바로 직업 속에 투영되고 있다.

“공연기획은 일종의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문화적 판단이 앞서야 하고, 올바른 의식이 바탕돼야 하죠. 올초에 시작했는데 욕심내지 않으니까 먹고 살 만합니다. 좋은 연주를 남에게 들려주고 싶은 욕망이 있듯, 나는 어떤 연주회를 만들든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하는 욕망을 갖죠.”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한 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에서 공연기획의 일을 주로 맡아 했던 강준택씨는 새로 시작한 사업에 대해 비교적 담담하게 말했다. ‘예푸리’란 이름은 예술도 풀고 옛날도 풀자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다고 했다. 올봄에 이미 「사물놀이」와 「신포니에타」를 공연했고, 지금은 12월에 있을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이야기」 준비만 남아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편이란다. 그 참에 요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그는 자신의 책읽기를 ‘暴讀스타일’이라고 표현했다. 무협소설부터 E.폭스의 「풍속의 역사」 등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서 어느 때는 읽을 책이 없을 정도였다고. 폭독과, 예술가적 정열과 우주의 수수께끼, 어쩐지 이 모두가 하나의 끈으로 이어질 수 있을 듯하다. 새로운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존재야말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는 아닐는지.

— 김지원 기자



## 베트남전쟁의 이면적 진실 제시 황석영의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

— 거손기획 許台尹씨



월남전을 일러 흔히들 가장 추악한 전쟁이라고 한다. 그 전쟁의 결과가 ‘월남패망’으로

이해되든 ‘베트남통일’로 평가되든간에, 월남전을 통해 자행됐던 참혹한 살륙과 부패한 자본의 자기관철 등은 현대인들에게 어떤 묵시록적 예언마저 제공한다. 게다가 월남전은 ‘참전의 악연’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黃皙暎의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형성사, 87)은 그런 월남전의 추악함이 드러내는 전쟁의 이면적 본질이 무엇이며, 월남전이 우리에게 인자한 상처의 의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비정할이만큼 차가운 문체로 부각시켜준다. 광고대행사 거손기획의 A.E.(Account Executive) 許台尹씨(28)는 요즘 이 「무기의 그늘」을 읽고 있다.

“대학시절에 읽었던 「전환시대의 논리」 등 이영희씨의 일련의 글들이 논리로서의 월남전 이해를 제공한다면, 이 책 「무기의 그늘」은 그런 논리가 생생한 현장감으로 육화돼 아주 절실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월남전을 소재로 발표됐던 작품들이 대개 사소설적인 몰역사성으로부터 비껴나지 못했고, 「플래툰」 「디어 헌터」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도 미국식 휴머니즘의 값싼 자기위안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작품만큼은 그런 사소설적 한계와 값싼 휴머니즘의 외피를 성공적으로 벗어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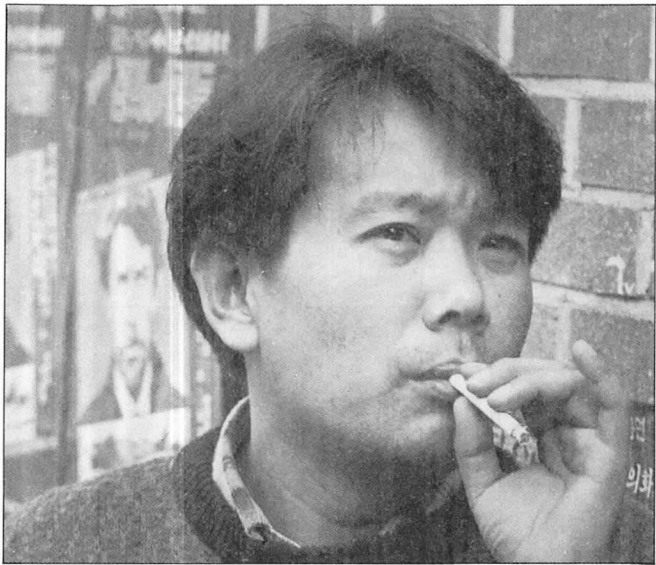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허태윤씨는 이 소설이 군수산업과 관련된 암시장을 주요무대로

삼고 있다는 데 각별한 의미를 발견한다고. 그에 의하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미국에 있어 월남전은 현상적으로는 명분없는 전쟁이었으나, 한편으로 미국 군수산업이 무한소비시장이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실리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가장 부패한 모습이 드러나는 암시장이야말로 그 ‘실리’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그러나, 그가 이 책에서 발견한 더 큰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우리는 ‘자유의 십자군’으로서가 아니라 ‘용병’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데올로기의 탈을 쓴 대리전쟁의 수행자로 개입해 같은 아시아인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움과 욕됨을 느끼게 되죠. 주인공 안영규가 귀국해서도 베트남에서 알았던 그 어느 얼굴과도 다시 만나기 싫어했던 것도 다 그런 부끄러움과 욕됨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카피라이터나 디자이너에 비해 광고업의 직종 가운데 널리 이해되고 있는 편은 못되는 A.E.로서 허태윤씨가 하는 일은 광고기획 및 영업, 그리고 광고주와 광고제작팀간의 커뮤니케이터의 역할.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광고주들의 광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의견조정역이 어렵다고 한다. 반면, 광고주의 요구를 제작실무팀이 정확히 소화하도록 전달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최근 그와 몇몇 동료들이 뜻을 모아 같이 하는 “이름도 붙이지 않은” 독서서클이 그런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상쇄시켜줄 것 같다고.

— 강철주 기자



## 이념과 인간애의 충돌 그린 알베르 까뮈 「정의의 사람들」

—연극배우 윤여성씨

지금 독서중

목적의 순수함이 과연 수단의 불순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부당한 압박과 부정을 응징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과 폭력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어떠한 이념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 속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갈등하고 흔들리게 마련인 것이 인간이다.

극단 '로얄 씨어터'의 대표이자 연극배우인 윤여성씨(34)가 22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까뮈의 「정의의 사람들」(83, 정음사)을 선택하게 된 것도, 그것이 이념과 인간의 존엄성의 충돌을 첨예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지난 10월에 이은 앵콜공연(11.1~11.30, 삼일로 창고극장)으로 하루 두차례씩 무대 위에서 까뮈를 '읽으며', 그는 과연 무엇을 사랑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라는 커다란 질문에 부딪혀 본다. "젊은 대학생들이라면 꼭 한번쯤은 이 작품을 읽어 봤으면 해요. 젊은이들은 자신의 순수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자칫 맹목적이게 되기가 쉽지요. 그러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를 반성해보고, 인간의 존엄성만이 절대적인 가치임을 깨닫는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까뮈가 1950년에 발표했던 이 희곡은, 1905년 러시아 황제의 삼촌 세르주大公이 모스크바사회혁명당 소속 테러리스트단원의 폭탄투척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씌어졌다. 사건의 주역인 깔리아에프가 첫번째 시도에서 어린아이 때문에 폭탄을 던지지 못했다는 사실과 죽음을 초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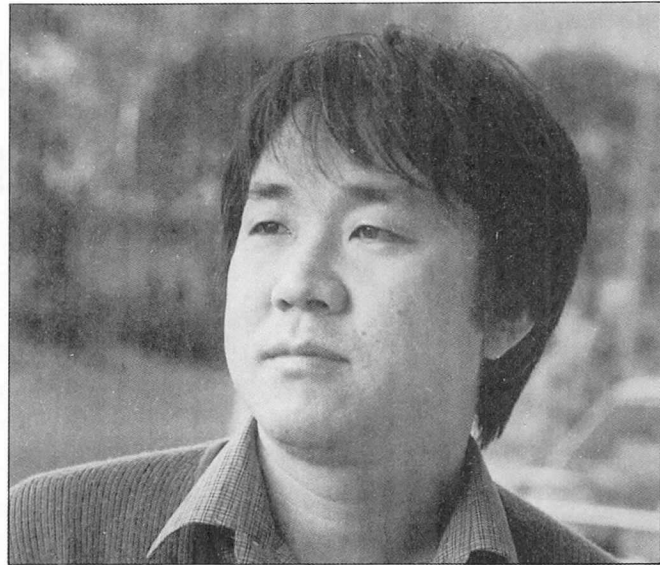
그의 당당한 태도에 깊이 감동했던 까뮈는, 「정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혁명배후의 인물들, 즉 투철한 혁명적의식의 소유자들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인간이기도 했던 젊은 지식인들의 갈등과 고뇌를 비극적으로 그려냈다.

"주인공 깔리아에프는, 혁명이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순수한 정열을 지닌 시인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신념의 소유자 스테뵘과는 여러모로 반대되는 인물이지요. 그는 대공의 마차에 합승한 아이들 때문에 폭탄을 던지지 못한 후 동료들과 심한 의견충돌을 빚지요. 결국 두번째 시도에 성공해 감옥에 투옥된 그는, 갖가지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살인자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죽기를 선택했다'는 말과 함께 교수대에 오릅니다."

대공이라는 인간을 향해서가 아니라 전체주의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고 자위하면서도, 살인이라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고민하는 깔리아에프의 복잡미묘한 성격을 표출하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윤여성씨는 말한다.

"역사에 눈먼 정의 대신 인간정신을 참담게 모욕할 수 있는 정의"를 갈구했던 까뮈의 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돼 있는 이 작품을 통해, 깔리아에프와 그의 동료들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 현실과도 멀지 않음을 느꼈다면 지나친 반응일까. "우린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하도록 선고받은 존재야. 사람들, 그들의 얼굴,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야. 정의보다 사랑!"이라는 도라의 절규가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오애리 기자



## 성을 통해 본 인간존재의 비밀 조르즈 바타이유 「에로티즘」

—상명여대 강사 이재형씨

지금 번역중

일찌기 사르트르가 '새로운 신비주의자'라고 불렀으며 미셸 푸코가 '현대의 가장 중요한

작가의 한사람'이라고 평했던 인물, 프랑스 최대 출판사인 갈리마르社에서 전10권의 전집까지 간행된 사상가인 바타이유는 생전의 몰이해와 달리 사후에 더 많은 찬사와 주목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한때 프랑스 내에서조차 무시와 억측을 받을 만큼 대단히 독특한 사고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의 국내 소개가 몇편의 단편을 제외하곤 전무하다는 사실은 당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에선 이미 바타이유 전집까지 완간돼 있는 마당에 바타이유의 사상에 대한 소개가 더 이상 늦춰지면 안될 것같아 이 책의 번역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매우 난해한 책이어서 진도가 생각만큼 빠르게 나아가질 못하는군요."

상명여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그동안 20종에 달하는 프랑스 문학작품과 철학서적을 번역해온 이재형씨(33)는 인간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파고든 바타이유의 사유에 깊이 매료된 듯 보였다. 대학교 은사의 추천으로 바타이유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특히 「에로티즘」이라는 저서가 바타이유 사상의 핵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보고 이 책의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도권과 규범문화가 허용하는 영역을 벗어난 부분을 탐구한 사상가이지요. 그래서 프랑스에선 그를 사드나 로트레아몽과 같은 계열인, '惡'을 추구한 작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후 오랫동안 잊혀져 왔는데 72년

전위적 문학기 「펠렐」誌가 특집으로 다루면서 복권이 되었죠. 사회의 규범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들, 예컨대 동성애, 빈곤, 신성모독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의 사상을 가리켜 '배변학' '배설문학'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관심은 인간의 암흑지대, 외설적이고 동물적인 부분에 접근해갔습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억압시키고 외면하려 하는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파고든 것이지요."

「에로티즘」이라는 책은 물리적 행위로만 이해되어온 에로티즘을 한단계 더 높여서, 에로티즘이 인간의 어떤 특수성을 드러내주는가를 탐구한 저서이다. 문학, 인류학, 종교학, 신비주의를 넘나들며 '에로티즘이 과잉상태로 넘쳐 흐르는 게 죽음'이라는, 평범한 독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고가 펼쳐진다.

"평생을 이단으로 살다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와 사상은 아직도 어둠에 싸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한때는 열렬한 초현실주의자이기도 했고 공산주의에 협력하기도 했으나, 그의 과격한 사고는 그 어느 것보다 타협하거나 안주하길 거부했습니다. 일생 '신의 죽음' '신의 부재'를 괴로와한 그가 62년 전신불수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전기적 사실은 기이한 감동을 주는 면이 있지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책의 번역은 내년 2월쯤 돼야 끝날 것 같다고 한다.

'언어를 태워 소멸'시키려했다는 바타이유의 격렬한 문체가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질지 기대된다.

—남진우 기자